

중국
조선족문학
총회담

김영희 우상렬

민족출판사

중국 조선족문학 총횡담

김영희 이상렬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中国朝鲜族文学纵横谈:朝鲜文 / 金英姬, 禹尚烈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7. 7
ISBN 978-7-105-08430-2

I. 中… II. ①金…②禹…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文学评论—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07.9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109715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7月第1版 2007年7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8.5

字数: 233千字 定价: 28.00元

ISBN 978-7-105-08430-2 / I·1849(朝195)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중국 조선족문학 총횡담

책머리에 한마디 부쳐

이 책에는 필자와 김영희선생이 쓴 중국 조선족문학에 관한 평론이나 논문들을 실었다.

필자와 김영희선생은 언젠가 연변대학 조문학부의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필자는 학부생시절부터 조선문학, 한국문학, 중국 조선족문학에 두루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해왔으며 나름대로 연구도 해왔다. 그러다가 석사과정공부를 하면서부터 전공방향이 조선-한국고전문학으로 확정되면서 조선족문학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었다. 김영희선생도 나하고 비슷한 학문적인 길을 걸어온것 같다. 단지 김영희선생은 석사공부를 할 때 전공방향을 조선-한국현대문학으로 확정했것이 좀 다를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본격적으로 학문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같은 길로 가게 되었다. 즉 학문연구의 방향을 중국 조선족문학으로 많이 돌렸던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어디까지나 중국 조선족이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 그리고 중국 조선족문학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한국에 가서 박사공부를 할 때 중국 조선족설화에 대해 썼을뿐만아니라 현재까지 줄곧 짚이 있으면 중국 조선족문학에 관한 글을 써왔고 일부 발표하기도 했다. 김영희선생도 나름

대로 중국 조선족문학에 관한 글을 부지런히 써왔다. 김영희선생은 이 방면의 글들을 나한테 자주 보내왔다. 그래도 내가 소금을 더 먹은 선생이라고 좀 봐달라는것이다. 그런데 나는 천성이 좁은 게으른 편이라 제때에 잘 봐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책을 낼 기회가 생겼는데 같이 내기를 원하는지라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나름대로 좋은 글들이라 인정되어 흔쾌히 승낙했다.

이 책은 종적으로는 중국 조선족의 천입의 력사와 같이 한 설화로부터 위만주국시기 박영준이나 박팔양 그리고 광복전야의 두혜성과도 같은 존재인 윤동주와 심련수 등에 이르기까지, 새 중국이 성립된이후 새로운 중국 조선족문학의 로, 중, 청을 대표하는 김학철, 림원춘, 우광훈에 이르기까지의 작가들을 취급했다. 횡적으로는 시, 소설 등 장르의 문체를 둘러싸고 서평, 만평, 론문 등 다양한 양식으로 다루었고 성별에 있어서 남녀 작가를 모두 취급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문학 종횡담》이라 하기로 했다.

본 종횡담은 그래도 중국 조선족문학에 있어서 화제가 되고있는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줄로 안다. 그리고 소개의 성격을 띤 글로부터 심도가 있는 론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나 양식으로 이루어져 누구나 나름대로의 볼거리를 확보하게 될것으로 안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중국 조선족문학에 관한 평론이나 론문집인만큼 체계성이나 내재적인 론리성을 기한것은 아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저서의 합작을 기대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이 책이 중국 조선족문학을 리해하고 연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필자들로서는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겠다.

우상렬 씀

2007년 3월 14일

차 례

친일문학의 허와 실—박팔양의 경우	1
친일의 내적론리—박영준의 경우	17
“일기”를 통해 본 심련수 및 그 시세계	35
윤동주와 심련수 시 비교연구	96
김학철과 사회주의사실주의의 허와 실	129
김학철과 민족성	162
김학철과 로신 비교고찰 시론	177
혁명적사실주의로부터 원색적사실주의에로 —림원춘소설 발전궤적	202
문학과 인생	237
황구연민담 특징론(서설)	244
작가들의 독특한 심미적시각—“천치계소설”의 경우	256

친일문학의 허와 실

— 박팔양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1937년 일제는 전면적인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조선을 병참기지로 삼으면서 허울 좋은 문화통치마저 집어 던지고 무단적인 강압통치로 나아갔다. 이로부터 악명 높은 창씨개명을 강요했고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여 우리 말과 글을 금지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언론매체를 폐쇄했다. 이리하여 최남선, 리광수를 비롯한 문단거두들의 친일행각과 더불어 친일문학이 점점 판을 치기 시작했다. 하여 1930년대말부터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 문단에는 문인체절문제가 일종 집단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의 폭발은 이런 경향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로부터 1940년대부터 1945년 8.15광복 전까지를 “문학의 암흑기” 내지는 “문학의 공백기”라고 하는것은 일리가 없는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친일문학의 내적론리를 보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있음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런만큼 이것을 일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다양한 양상을 감안하여 변별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될줄로 안다. 주동적으로 친일부일로 나간 골수분자로부터 부화뇌동의 맞장구치기, 그리고 자체의 성격기질이나 실수,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굽적이기 등 다양한 양상을 상정해볼수 있다. 이

로부터 친일문학의 허와 실의 논리도 성립될것이라 인정한다. 친일문학의 허와 실, 변별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한 작가의 친일행각을 포인트로 하되 그것을 전후좌우, 종적인 차원과 횡적인 차원의 전반적인 창작상황속에서 살펴보아야 될것이다. 이런 종횡의 좌표속에서 다른 작가와의 비교시각을 통해 살펴볼 때 그 허허실실이 여실히 드러날줄로 안다. 본고에서 론할 박팔양의 친일문학문제도 이런 종횡의 좌표와 비교시각속에서 살펴보아야 될것으로 안다.

박팔양은 조선 국내에서 프로문학이 완전히 해산되고 순수문학의 폭도 점점 좁아져가는 상황에서 1937년 3월 중국 만주 신경(현재의 장춘. 필자 주)으로 건너온다. 박팔양은 처음 《滿蒙日報》에서 근무하다가 《滿鮮日報》의 부장으로 임직하게 된다. 그후로는 만주 제국협화회 중앙본부에서 광복전까지 근무하게 된다. 일제에 의해 직접 조종되는 위만주국의 어용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는 신문 《滿蒙日報》, 《滿鮮日報》에 근무, 그것도 부장으로 임직하고 위만주국의 중요한 부서의 하나인 협화회 중앙본부에 근무하던 그는 어쩔 수 없었는지 몰라도 친일행각을 보였다.

1940년 신경에서 낸 그의 시집 《麗水詩抄》¹⁾는 이것을 잘 말해준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을 보면 가볍고 부드러운 말로 사랑을 노래하고 자연을 찾으면서 예리한 사회문제를 비껴간 흔적을 남기고있다. 이를테면 《여름 밤 하늘 우에》서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의 신비는 리해하지 못한다면 신비를 찾는 예술을 옹호하는 주장을 상식수준에서 하고있다. 여기서는 1923년—1924년 사이에 창작된 그의 초기 시들인 《공장》, 《나그네》, 《거리로 나와 해를 겨누라》, 《고향》 등 시작품과 같은 신경향과 경향을 볼수 없다. 더우기 계급적인 자각속에서 현실적모순의 타개에 대한 지향을 나타낸 《려명이전》, 현실을 한층 더 계급적인 모순속에서 파악하면서

1) 博文書館.

제급의식을 고취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낙관적인 시세계를 탐구해나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밤차》(1927), 《데모》(1927) 등에서는 부제를 각기, “새시대를 생각함”, “새로운 시대의 녀인 같은 그곳의 녀인을 노래함”이라 붙였고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을 직접 표현한 《새로운 도시》(1929), 《여인》(1930), 이른봄에 피는 진달래에 기탁하여 혁명의 선구자를 노래한 《너무도 슬픈 사실》(《진달래》, 1930), 때로는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불만을 그리고 때로는 고달픈 인생과 이러저러한 투쟁과 항거의 세계를 노래하면서도 줄곧 새시대를 갈망하고 낙관하였으며 그를 위해 내달리는 선구자, 선각자의 모습과 그들의 리상을 구현한 《봄》(1936), 《승리의 봄》(1936) 등 일련의 카프시들을 볼수 없다. 박팔양은 분명 일그러진다.

1942년에 신경의 만선학해사(滿鮮學海社)에서는 만주국건국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형 종합론문집 《半島史話와 樂土滿洲》를 출판한다. 박팔양은 여기에 “서(序)”를 쓴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 소속을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라고 밝힌다. 이 “서”는 친일적성향이 짙다.

때는 바야흐로 大東亞戰爭이 我所向無敵의 日本軍의 世紀的이고 異的인 大勝利中에 着着 그 成果를 挙우고 東方共榮의 聖域이 하로하로 凱歌속에 일우워지는 오늘 그 北邊의 守護城인 我滿鮮에 關한 이 文獻 이 上자됨이 어찌 偶然이라 한箇의 宿命이요 必然이라 할壯 舉임에 틀림이없다.

아아 滿洲人당! 꿈에도 못넋는 우리 故郷 우리 나라가 안인가? ...”

여기서는 일본의 대동아전쟁과 “동방공영(東方共榮)”을 공공연하게 찬미하고 위만주국을 우리의 고향과 나라라고 토로한다. 그리고 역시 만주국건국 10주년기념으로 《만주시인집(滿洲詩人集)》을 제일협화구락부 문화부에서 기획하고 발행하는 마당에 박팔양이

“우리가 滿洲를 사랑하는 心情은 이땅이나라의 大氣를 呼吸하고 살아온 우리가 아니면 想像하기도 어려우리라. 남이야 무어라 하거나 滿洲는우리를 길러준 어버이요. 사랑하여 안어준 안해이다.”고 서두를 텐 “서(序)”를 쓴다. 이 “서”에서는 만주 내지는 만주국에 대해 “어버이”, “안해”에 비기며 다함없는 정을 쏟아붓고있다. 그래서 친일적인 성향을 떨쳐버릴수 없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볼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첫째, 당시 공식간행물에 이른바 이런 “친일”적색채를 풍기지 않을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생계의 차원에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것일수도 있고 “취옹의 뜻이 술에 있지 않다(醉翁之意不在酒)”는 식으로 연막탄의 구실을 했을수도 있다. 박팔양이 만주제국협화회 중앙본부에 근무한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제조건하에서 사실 그는 《半島史話와 樂土滿洲》의 “서”에서처럼 로골적인 친일성향을 보이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런만큼 그의 내심, 진의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줄로 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최삼룡의 논문 《박팔양과 신경》²⁾에서 “그리고 ‘半島史話와 樂土滿洲’에서 서문을 쓴 사실만 따진다면 박팔양은 당연히 친일친만 분자라고 간단히 결론지을 수 있겠지만 그의 몇 편의 글을 깊이 읽다보면 그를 간단하게 친일친만분자라고 짚기에는 너무 이르다는것이다.”고 한 관점에 동감이다.

둘째, 만주가 당시 조선인들에게 주는 이미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주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만주국이라는 현실적인 결끄름함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맥락 및 민족적정서와 닿아있는 존재이다.

“이나라이 單調로운 倣연한 地平線 紅柿가치 새빨간 저녁해 모

2) 《문학과 예술》, 2006. 1.

양새업은 우리部落의土城 머언 白楊나무쑥 적은개울물 하나 하잘것업는 돌덩이흑덩이 하나하나에도 우리네 歷史와傳說과 限업는 愛情이 속속드리 숨여있다...그럼으로 이땅 이나라의 自然과 사람은 完全히 愛撫하는 우리 肉體의 한 部分이다.

長白靈峰의 품미를 의지하고 살은 우리요 黑龍長江의 울타리 안에서살은 우리가 아닌가? 松花江 언덕 杏花村에 情드리고 살고 海蘭江白沙場에 넋이야기를 주으며 귀로 [오랑캐고개]의 傳說과 눈으로 [渤海古址 六宮의 남은자취 주추돌도 늘근것](尹海榮氏)을듯고 보고 살어온 우리다.

아아 滿洲땅! 꿈 에도 못甞는 우리故鄉 우리 나라가 안인가?"

박팔양의 《만주시인집》 “서”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만주는 분명 “우리네 歷史와 傳說과 限업는 愛情”이 깃든 곳으로 “長白靈峰”, “黑龍長江”, “松花江”, “海蘭江白沙”, “渤海古址 六宮”, 그 어느 하나 민족적 정서와 닿지 않은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현실적인것만으로 볼수 없는 “꿈에도 못甞는 우리故鄉 우리나라”로 안겨오는 원형이미지일줄도 모른다. 이로부터 《만주시인집》을 “滿洲朝鮮人 辛酸한 한世紀 살림³⁾에 잇서서 可謂 最初의 花壇에 핀꼬치요 또 生活文化의 結實”로 보는것도 십분 리해가 간다.

이렇게 볼 때 심적차원에서 당시 조선인에게 있어서 만주는 차별인지주배요자기수(借別人之酒杯澆自己愁)하는 매개물에 불과한것일수도 있다.

셋째, 당시 만주에서 우리말 창작이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조선 본토에서는 우리 말과 글이 말살되고 문학창작도 일본어로 강요된 상황에서 그래도 만주에서는 우리 말과 글이 통했고 《만선일보》의 조그만 문예란을 통해서나마 우리 글 문학창작이 명맥을 유지했으며 《만주시인집》같은 작품집들도 출간할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 병어리가 말할수 있는 감격에 값

3) 밑줄 필자가 친것임.

하는것일수도 있다. 일단 그 말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사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최삼룡의 논문 《박팔양과 신경》의 지적을 보면, “박팔양이 직접 편찬한 이 시집의 태반의 시들은 동포들의 망국과 실향의 한을 눈물겹게 읊조린것이 태반이라는것도 알수 있다.” 할 때 그것은 금상첨화의 격이다.

그래서 1940년 4월에 있는 내선만문화좌담회(內鮮滿文化座談會)에서 일본문인들이 조선인문인들에게 일본어로 창작할것을 제의하자 조선인 참석자가운데 박팔양이 이렇게 말한다.

그點은 어떨런지요 朝鮮 서는 小說을 原體 純 諺 文으로쓰는 習慣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金史良이 朝光이란雜誌에 漢諺純文을 試驗하는모양인데 이때까지의눈으로 서러서그런지아주小說을對하는 것것지만아요 뇌간서먹서먹하지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作者로 讀者에게 이런印象을주게하는것은自己로서 여간손해가아니여요. 文字의 形式을 달이하는대로 이면差異가있는바이나 生活의相異한言語로서그 生活의在來로가것은 微妙한것을 讀者들에게傳하기에는여간어려운일이아니요. 이진結局翻譯文學이 얼마나어렵다는 一般論으로도證着되겠지요.⁴⁾

여기서 박팔양은 조선에서 소설은 원래부터 습관적으로 조선어로 썼다는것을 피력하면서 김사량이 한문과 조선어를 섞어서 창작한 경우를 예를 들어 그것이 눈에 설고 여간 서먹서먹하지 않았다는 그 부당함을 력설했다. 또한 조선어와 문자형식을 달리한 언어로써는 생활의 미묘함을 독자들에게 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번역문학의 어려움에 비겨 결국은 일본어창작의 부당함을 도리를 따져가며 대바른 주장을 폈다.

이것은 본 좌담회에 대하여 《國民文學의建設! 滿洲國에서도考

4) 《滿鮮日報》, 1940. 4. 9.

慮될가》라고 의심한 《만선일보》의 보도제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일제가 조선 말과 글 말살정책을 실시하여 만주에서조차 조선문 작품창작을 극력 금지하고 일제의 “국민문학”을 건설하려는 시도를 아예 언어차원에서 불식하고있는셈이다. 박팔양의 민족심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박팔양의 민족심은 1924년 연희법전을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잘 드러난다. 《박팔양의 시 문학》⁵⁾에 보면 졸업당시 박팔양은 학교측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로의 취직을 거절하였다. 하여 만주에로의 이주 이전까지 그 당시로서는 경제난을 면할수 없었던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조선일보》, 《조선중의일보》 등 조선문 신문사에서 보잘것없는 일개 기자로 전전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이것을 《박팔양의 시문학》에서 한 말로 인용해보면 “물론 일방으로는 그가 일생을 문학을 통하여 대중에게 복무하려는 굳은 결의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권력을 등에 지고 세도를 부리는 직업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를 느꼈기”때문이었다.

1937년 만주에 건너와서도 그는 역시 조선문 신문사인 《만선일보》에 취직한다. 물론 후에는 만주국협화회 중앙본부로 자리를 옮긴다. 그러나 《만선일보》의 조그마한 문예란이나마 조선문 작품창작 명맥을 유지할수 있었던것은 바로 당시 외적으로는 만주국협화회 중앙본부라는 위만주국의 공식적인 신분을 가지고있고 내적으로는 조선인문인들의 리드 격으로 일을 한 박팔양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당시 이런 조선어 발표지를 지켜나가는것이 곧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하나의 방편임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1942년에 나온 《만주시인집》도 일단은 조선어로 창작되었다는 점에 가치를 둘수 있을것 같다.

5) 이정구, 《박팔양의 시 문학》, 《현대작가론(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물론 조선어로의 창작이 허용됐다 해서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민족적인것을 자유자재로 고취할수 있었다는것은 아니었다. 사실 일제의 혹심한 검열제도하에서는 민족의 심성을 자유롭게 토로, 표현할수 없었고 때론 국책색채를 보여주어야 하는 억지 찬양노릇도 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주시인집》이 만주국건국 10주년 기념으로 다분히 일제의 5족협화의 냄새를 풍기는 제일협화구락부 문화부에서 기획하고 발행한것도 좀 리해가 간다. 따라서 당시 위망이 대단했던 박팔양의 상기의 “서”를 쓴것도 리해가 간다.

물론 두번째와 세번째 상황은 허울 좋은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국책적인 간판속에서 표출될수 있는것이고 작품집 출간 같은것은 만주국건국 10주년을 계기로 하여 성사될수 있었다. 민족적량심이 있는 조선인문인들은 어디까지나 족쇄를 차고 춤추는 형국을 면할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박팔양의 《만주시인집》 “서”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수 없다. 그리고 《만주시인집》 마지막 편에 실린 박팔양의 두수 《季節의 幻想》과 《사랑함》도 마찬가지다.

《季節의 幻想》에 이른바 친일적성향이 내비치는 두구절 “나는 五色의 꿈과 무지개를 봅니다.”와 “이나라 男女同胞의 體溫과重量을 堪耐하기도 합니다.”를 보면 첫번째 구절이 분명 오족협화의 리상을 노래한듯하나 그것을 그앞의 구절 “沈黙하며 짓는 나의 무거운 行進속에서”와 련계시켜서 볼 때 일종의 아이로니를 표출하고있다. 그리고 두번째 구절도 “이 나라 男女同胞의 體溫과重量”을 거론하면서도 그것은 일종 “堪耐하기”도 해야 하는 부담일 때 역시 아이로니의 표출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사랑함》이라는 시에서도 보면 물론 “나의 일본-조선과 만주를 사랑하며”라는 구절에서는 당시 시대적상황에 의한 내선일치의 냄새가 풍기지만 그것을 전반 시적경지에서 고찰할 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종 보편적이고 애니미즘적인 확장형 사

랑에 바탕하여 물살처럼 퍼져나가는 “사랑함”의 한 형태로서의 나라와 국가에 대한 사랑의 상징메타포로 쓰인 시적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한보 물려서서 가령 이런 시들이 친일경향을 나타내고있다 하더라도 일본어로 창작을 하며 전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영합한 최남선과 리광수 류의 친일작품들과는 구별이 된다.

사실 박팔양의 경우를 보면 일제의 검열이 더욱 심해져 운신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아예 창작을 포기하고만다. 당시 조선인 평론가 고재기가 《재만선계문학》이라는 글에서 당시 조선인시단을 소개한 부분을 잠깐 보자. 그는 “다음 시단을 볼 때 여수, 박팔양, 백석, 유치환, 김조규 등은 모두 시집을 간행한 적 있는 중견시인들인데 현재 모두 거의 쓰지 않고 있다.”고 쓰면서 박팔양을 비롯한 중견시인들이 ‘창작을 그만두다싶이 한 적막한 문단상황을 지적하고있다. 당시 만주의 전반 문단상황을 놓고 볼 때 일제의 고압통치와 전쟁의 패색이 짙어감에 따라 민족적인 양심을 가진 문인들은 이렇게 필을 꺾고 침묵을 지킬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리찬(1910년—1974년), 리용악(1914년—1971년)의 경우와 잠깐 대조해보도록 하자.

리찬은 광복전 1930년대 초기에 옥고를 치르고 어려운 생활에 봉착한데다가 1930년대 말기에 이르러 일제의 파쇼적인 만행이 가혹해짐에 따라 이 시기에 출간한 《대망》(1937), 《분향》(1938)⁶⁾, 《망향》(1940)⁷⁾ 등 시집들에 소시민적인 현실주의와 감상적인 낭만주의색채를 드러냈다. 하지만 《결빙기》, 《국경의 밤》(1937), 《눈내리는 보성의 밤》(1938) 같은 시들에서는 민족의 불행한 처지를 반영하였고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당시 대중들의 뜨거운 지지와

6) 한성도서(주).

7) 博文書館.

공감을 반영하였으며 새로운 시대를 갈구하는 내용들을 반영하여 돋보인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1930년대말과 1940년대초에 발표한 리찬의 시들은 별다른 문학사적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범속한것으로 전락하게 되고 급기야는 친일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그러다가 1944년 일제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무렵에 이르러 일제의 학도병 출정을 찬미한 전쟁고취의 시 《송출진학정(送出陣學征)》⁸⁾을 발표하여 결국 여지없는 시적훼손을 하고만다.

리용악의 경우, 그가 작품활동을 시작한 1930년대 중반은 사실 카프 중심의 리얼리즘문학이 퇴조하고 모더니즘문학이 주류를 형성해나간 시기였다. 그러나 그의 시의 본령은 세계관적기초가 미약했던 모더니즘성향의 작품들에 있는것이 아니라 투철한 현실인식이 강조된 리얼리즘적경향의 작품들이 현저한 우위에 있다. 이를테면 《나를 만나거든》, 《북쪽》 등 일련의 시들은 억압과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식민지하 조선민중의 적빈한 삶의 모습 및 떠나가고 팔려가는 식민지 참상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1938년에 창작한 《제비같은 소녀야》, 《우리의 거리》,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넓은 집》 등은 일제의 토지강탈과 경제독점에 떠밀려 쫓겨가는 간도이주민들의 집단적인 비극의 설움과 울분을 토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제말기에 《춘추》, 《국민문학》 등 친일적성향이 짙은 잡지들에 이따금 작품을 발표했었다. 현재 확인되는 《죽음》, 《길》, 《불》, 《눈 내리는 거리에서》 등 친일시들은 그를 변절문인의 대렬에서 제외될수 없게 한다. 이 점에 대해 시의 상징적속성 등의 논의로 변호하는 립장을 취하는 론자들이 없지 않지만 아마도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죽음》을 잠간 보도록 하자. 이 시는 짐짓 도학적이고 종교적

8) 《每日新報》, 1944. 1. 19.